

일제의 대륙침략양상과 그 요인 고찰

金采洙*
chaesu@korea.ac.kr

<目次>

- | | |
|------------------------------|----------------------|
| 1. 서론 | 2.2 일제의 대륙침략의 전개양상 |
| 2. 본론 | 2.3 일제의 대륙침략의 사상적 배경 |
| 2.1 일제의 대륙침략 시발과
그 기본적 성격 | 3. 결론 |

主題語: 자본주의(Capitalism), 제국주의(Emperialism), 일본제국주의(Japanese Emperialism), 대륙침략(Invasion of the Continent), 사회진화론(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1. 서론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일제의 대륙침략에 대한 고찰은 내셔널리즘의 시각에 입각해 행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글로벌적 시각에 입각해서 일제의 대륙침략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으며 그 사상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고찰하고, 그것을 통해 일제의 대륙침략의 새로운 면모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600년 가깝게 막번제(幕藩制) 봉건주의 국가형태를 취해 나왔다. 그래왔던 일본이 근대 서구의 세력이 동침해오자, 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메이지 유신(1868)을 일으켜 근대 천황제 국민주의 국가의 형태로 전환해 나와, 대륙진출을 감행했다. 그것의 첫 시발이 대만 출병(台灣出兵, 1874)과 강화도 사건(1875)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그러한 대륙진출은 곧 침략의 형태를 취해 그 후 70년간에 걸쳐 줄기차게 행해져 나갔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망국으로 끝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일본의 그러한 대륙침략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들에 가져다준 부정적 결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침략국 일본과 피침략국 한국중국 등의 확실한 입장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제의 대륙침략의 결과로서 일본이 패망한 지도 67년이 지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전 지구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현안들에 접근해 가야할 글로벌시대에 진입한지도 어언 20년이 지난 시점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일제의 대륙침략과 그 결과로서의 일제의 패망이 몰고 온 정치적, 사회적 여건들을 한층 더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시점에 처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대적 이념에 입각해 일제의 대륙침략과 그 결과를 고찰하여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할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까지의 일제의 대륙침략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는 어디까지나 침략자의 시각에서, 한국인·중국인 학자들에 의해서는 피침략자의 시각에서 행해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논지는 본 연구를 통해 우선 글로벌적 시각에서 일제의 대륙침략이 어떻게 시작되어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제가 대륙침략을 자행한 일차적, 이차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규명해낸다. 끝으로 새로운 시대적 이념으로 부상한 글로벌리즘에 입각해 침략국의 입장과 피침략국의 입장에서 일제의 대륙침략의 의미를 파악해내려 한다.¹⁾

2. 본론

2.1 일제의 대륙침략 시발과 그 기본적 성격

유럽이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선 것은 1871년의 독일 통일을 계기로 해서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독일은 186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소국들로 분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독일은 영국 프랑스러시아 등의 국가들의 경우처럼 해외에서의 식민지 개척 정책을 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1870년대로 들어와 보불(普佛)전쟁(1870~1871)의 승리를 계기로 그 동안의 연방국 상태로 분립되어 있던 독일이 북방의 프로이센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유럽 국가들이 해외에서 일으킨 식민지 쟁탈전에 끼어들게 됨에 따라 전 유럽이 제국주의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저임금정책에 반발하는 사회주의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값싼 노동력과 원료(原料)를 얻기 쉬운 해외 쪽으로 관심을 쏠아가는

1) 김채수(2012) 「글로벌시대란 어떤 시대인가-문명사적 측면을 통해-」 『일본근대학연구』 제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43-245

한편 정치의 반동화(反動化)와 군국주의화를 추진해가고 있었다.²⁾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전환해 나온 일본이 유럽의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된 것은 유럽이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선 지 1년 후인 1872년 이와쿠라(岩倉) 구미시찰단 (1871. 10-1873. 9)의 유럽 순방을 통해서였다. 이와쿠라 시찰단의 만 2년간의 유럽순방은 영국 · 프랑스 · 벨기에 · 네덜란드 · 독일 · 러시아 · 덴마크 · 스웨덴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스위스 등으로 행해졌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군국주의 정책을 취해 국가를 통일시켜 식민지 쟁탈전에 갇혀버린 독일제국이었다. 그들에게서는 정부가 군국주의 정책을 취해 해외식민지를 개척해감으로써 강대국들에 대항해가면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사회주의세력의 불만을 해소시켜가는 것이 이상적인 국가정책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대륙침략 시발은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국가들을 접한 이와쿠라 구미시찰단의 귀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근대 일본의 대륙침략은 구미시찰단이 부강한 유럽 국가들을 목격하고 돌아와 취한 ‘탈아입국’(脫亞入國)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시발된 것이다. 탈아입국 정책이란 약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탈피하여 부강한 유럽국가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약한 아시아 국가들이란 인도, 동남아 제국가들, 중국, 한국 등과 같이 식민지 내지 반(半)식민지 상태에 처해있는 나라들이었고, 부강한 유럽 국가들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가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

그러한 정책을 추진시켜 나갔던 첫 정권은 오키나와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독재정권이였다. 오키나와는 이와쿠라 시찰단의 일원이었다가 국내사정이 염려되어 1873년 5월에 다른 시찰단원들보다 일찍 귀국한 자였다. 그는 귀국한 그 해 11월, 외유 중이던 1871년(메이지 4년) 국내잔류파들이 사족들의 불만을 해외침략으로 전환시켜나가기 위해 추진시킨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을 몰아내고 그 이듬해인 1874년 5월에 3년 전에 일어났던 대만인의 류큐(琉球) 현재의 오키나와로 메이지 유신 전에는 일본의 사쓰마번(薩摩藩)과 중국 양쪽에 속했던 지역) 어민 살해사건을 구실로 우선 대만 침략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청국 정부로부터 류큐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고, 살해사건의 보상금으로 50만 냥을 받아낸 후 일본의 대만 정벌을 완강히 버티던 대만으로부터 철수했다.

일본의 오키나와 도시미치는 1874년 대만 침략의 처리를 위해 북경을 방문하게 된다. 그때 그는 청국 주재 영국 공사 웨이드(T. F. Wade)를 만나게 되는데, 오키나와는 웨이드로부터 “일본이 대만으로 향하지 않고 조선으로 간다면 영국은 일본을 원조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³⁾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를 통해 조선의 문호를 무력으로 개방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미국

2) 김성근 외(1964) 『세계문화사V』학원사, p.358

3) 강동진(1985) 『일본근대사』한길사, p.71

은 단독으로는 한국의 문호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던 나머지 조선침략을 위해서는 일본과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의 정한론은 바로 그러한 국제적 정세 하에서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로부터 5년 후인 1876년에 일어난 일본정부와 조선의 민씨 일파와의 사이에 맺어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논자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의 그러한 강화도조약 체결 성사의 배후에는 우선 미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원조가 있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주일공사가 외무경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와의 회담을 통해 일본의 조선침략 계획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⁴⁾ 결국 조선은 근대 선진국들 간의 협조와 견제를 통한 식민지 쟁탈전이 행해지는 국제적 상황 속에서 일본과의 그러한 강화도조약 체결(1876. 2)을 맺게 됨으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의 첫 발판을 허락해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제의 대륙침략은 유럽 국가들이 1871년 독일 통일을 계기로 제국주의시대로 접어들게 된 시점에서 시발되었다. 일제의 대륙침략 시발은 구미제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협조, 프랑스와 러시아의 묵인 하에서 행해졌다.

일제의 대륙침략의 요인은 국내적 정치 상황과 국제적 정치 상황이라는 두 측면으로부터 찾아질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비롯한 국내 잔류파들이 실직한 무사 출신들의 국내 정치에 대한 불만을 대륙침략을 통해 해소시켜야한다는 주장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공조체제의 구축이라는 구미시찰파의 입장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다. 일제의 대륙침략 시발은 이상과 같은 쌍두마차의 추진력에 의해 행해졌던 것이다.

2.2 일제의 대륙침략의 전개양상

2.2.1. 제1단계 - 청일전쟁(1894-1895)을 통한 대만 획득

1890년대는 제국주의 세계체제가 확립된 시기였다. 이 세계체제와 맞물려 동아시아도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한 제국주의 세계체제는 1881년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프랑스가 튀니지를 점령하자, 1882년 독일이 이에 대응해 오스트리아·이탈리아와 3국 동맹(1882~1915)을 맺어 식민지쟁탈전에 대한 공동 전략을 세워나가게 된다. 그해 영국의 이집트 점령, 1883년 프랑스가 베트남 보호국화, 1884년 영독이 뉴기니 분할, 1885년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점령, 동년 독일의 마셜 군도 획득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왔다. 이하하여 19세기 말까지

4) 강동진, 상계서, p.72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는 영국이, 동남아시아는 프랑스가, 중국의 남부는 영국이, 그 북부는 러시아가, 조선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지 분할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분할통치체제 확립은 피식민지국가들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간의 연합을 통해 식민지 통치 국가들 간에는 경쟁을 통해 행해졌었다. 그러나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그러한 식민지쟁탈전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은 자국의 자본진출 정도의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그래서 미국의 갑신정변에 대한 태도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줄곧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자본 진출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 단적 예가 갑신정변으로 인해 입은 일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조선정부에 전가시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낸 한성조약(漢城條約, 1885. 1)의 입안에 관여한 자가 일본정부의 고문인 미국인 스티븐스였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러시아가 1891년 5월부터 시베리아철도건설을 시작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와 대결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일본열도와 러시아를 제압해 간다는 입장을 취해 일제의 조선침략을 지지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논자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일으킨 청일전쟁은 영미의 지원 하에 행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의 청일전쟁은 민권운동세력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국권운동으로 전환해 나와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조선인민을 봉건주의사회로부터 구제해내야 한다는 근대 시민운동 세력들의 열렬한 지지 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한 운동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소위 아시아주의라는 이념에 입각해 우익운동세력이 형성되어 나왔다. 예컨대 일본 최초의 우익단체 ‘현양사’(玄洋社)가 형성된 시점은 일본에서 자유민권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879년이었다. 그것은 처음에 자유민권 운동세력으로 출발했는데 갑신정변을 계기로 하여 우익단체로 전환해 나와 청일전쟁 직전에서 ‘천우협’(天佑俠)과 같은 비밀단체를 만들어 조선에서의 청일전쟁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청일전쟁은 그러한 국권운동단체들 및 우익단체들이 주축이 된 대외(對外)강경 운동의 물결을 타고 야기되었던 것이다.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세계에서의 전근대 봉건주의사상에 기초해 있는 전근대 청국과 근대 시민사회의 길로 들어선 근대 일본과의 신과 구의 사상적 대립이라는 성격을 지닌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지식인들도 청일전쟁을 야만에 대한 문명의 ‘의전’(義戰)로 생각하고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취해나갔다. 일제는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우선 조선을 청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일본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았고 대만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

어 놓았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제국주의로 전환하여 동아시아의 맹주를 상대로 해서 일으킨 첫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일제는 청일전쟁(1894-1895)에서 승리해 1895년 4월에 일본과 시모노세키(下関)조약을 맺게 된다. 그 조약에서 일제는 청으로부터 당시 청의 세입 총액의 2.5배분에 해당되는 2억 냥을 배상 받는다. 또 일제는 청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을 인정케 하고, 청으로부터 대만, 펑호도(대만 서쪽에 있는 섬)와 함께 요동반도도 할양(割讓) 받는다. 그러나 일제는 동월 러시아·프랑스·독일의 간섭으로 인해 청으로부터 3천만 냥을 더 받아내고 그 다음 5월에 요동반도를 반환한다.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1891-1905 건설: 첼랴빈스크-블라디보스토크)를 연장해 만주 남북철도를 건설하여 만주와 조선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⁵⁾ 마침 러시아는 삼국 간섭을 계기로 청으로부터 시베리아철도의 한 역인 치타에서 흑룡강길림의 두 성(省)을 횡단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동청(東淸)철도(1901년 개통)의 부설권뿐만 아니라 산둥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교제선(膠濟線)의 부설권까지를 획득한다. 1897년에 와서는 독일함대가 산둥반도의 교주만(膠州灣)을 점령해 그 다음해에 독일이 청도(靑島)와 교주만의 조차권을 획득한다. 그러자 러시아함대는 여순 항을 침입하여 러시아가 여순대련항의 조차권을 획득한 다음, 동청철도의 한 역인 하얼빈에서 대련에 이르는 남만주철도의 부설권까지를 획득한다. 영국과 프랑스도 그냥 있지 않았다. 영국은 구룡반도와 산둥반도의 위해위(威海衛)를 프랑스는 광주만(廣州灣)을 조차했다. 이렇게 러시아는 동북 삼성(滿洲)·몽고, 독일은 산둥반도, 영국은 양자강 유역과 광동 동남부, 프랑스는 베트남과 광서·광동서부·운남 남부 등을 차지했다.

그러자 1899년에 부청멸양(扶淸滅洋)의 슬로건을 내건 의화단(義和團)의 난이 일어나 그들에 의해 북경 거리에서 독일 공사와 일본 공사관원이 살해되고, 공사관 지역이 포위되었다. 그러자 독일·일본·러시아 등의 8개국 연합군이 공동 출병했다. 중국 본토에서 이익을 취해 오지 못했던 일본은 이때라 생각하고 군대를 대거 출병시켜 조선과 만주 남부를 에워쌌다.

중국 정부가 그 해 6월 연합군에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연합군은 북경을 점령함으로써 1901년 9월에 청로와 열강 간에 ‘북경의정서’(北京議政書)가 체결된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치치하르·하얼빈·길림·봉천(심양) 등의 동북 삼성의 요지를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러시아에 대한 영·미·일의 적개심이 격양되어 당시 일본 내에서의 라일 협상론자 사이에서는 러·일간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만주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조선지배도 러시아로 하여금 인정케 하지는 이른바 ‘만한교환론’이 주창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일이 동맹해야

5) 김채수(2009) 「근현대 일본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의식 -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와 그 주변 인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어일문학』 제 4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10-311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그들은 “러시아의 만주지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일본의 조선지배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⁶⁾ 그러한 가운데 영국과 동맹하는 것만이 러시아에 대항해 갈 수 있다는 주장들이 대세가 되어 드디어 1902년 1월 영일동맹이 조인되었다. 이것은 영국이 일제의 한국 강점을 승인한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2.2.2 제2단계 - 러일전쟁(1904~1905)을 통한 조선획득

1)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동서간의 첫 제국주의 전쟁이다. 러일전쟁(1904. 3~1905. 9)은 러시아와 일제가 한국과 중국 동북부의 지배를 둘러싸고 일어난 전쟁이다. 러시아는 만주를, 일제는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 전쟁이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이 전쟁에 대해 중립을 지켰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배후에는 프랑스가 있었고, 일제의 뒤에는 영미가 있었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러시아는 프랑스에서, 일본은 영·미에서 외채를 끌어왔다. 또 당시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의 적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러시아와는 협조적 관계였다. 러일전쟁은 1905년 1월 1일 일제의 여순(旅順)함락으로 전세는 일제 쪽으로 기울어, 일제 승전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동년 1월 22일 러시아에서는 페테르스부르크의 노동자들이 황제에게 생활난을 호소하기 위해 궁전으로 향하다가 군대의 무차별 사격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 ‘피의 일요일’이 야기되었다. 결국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러시아에서 ‘러시아 제1 혁명’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서아시아에서의 아시아 민족들의 민족적 각성이 고취되었다. 한편 한국의 곳곳에서도 일제의 인천불법 상륙, 경인 지역 일대의 불법 점령 등을 비롯한 침략행위에 항의해 전국에서 의병 활동이 전개되었다.

일제가 조선 획득을 두고 러시아와 치룬 러일전쟁은 영·미와의 협조체제를 취해 치러진 전쟁이다.⁷⁾ 러시아는 일제를 견제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 1896년 6월에 러·청 비밀조약을 맺고, 시베리아로부터 만주를 경유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동청철도(東淸鐵道) 부설권을 확보하고 삼국간섭으로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요동반도의 조차(租借)도 1898년에는 성공시켰다. 러시아는 1900년 7월 의화단운동으로 동청철도가 만주에서 파괴되자 15만 대군을 파견해 만주를 점령해 버렸다. 그러자 영·미일은 공동보조를 취해 러시아의 그러한 행위를 저지해간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는 만주와 한국은 불가분한 관계라 생각해왔었고, 또 일본 단독으로는 중국에서나 조선에서의 침략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1901년 1월에 러시아가 조선을 열강의 공동 보장 하에 중립화시키자는

6) 강동진(1985) 『일본근대사』 한길사, p.200

7) 宇野俊一(1980) 『日露戦争』『岩波講座 日本歴史17』岩波書店, pp.12-13

제안이 있었으나 러시아군의 만주 철군이 선결문제라는 입장을 취해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러일협상론자들은 러시아는 만주를, 일본은 조선을 지배한다는 교환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그러한 입장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영일동맹론자들이었다. 영일동맹론자들의 의견이 우세해 결국 1902년 1월 영일동맹에 조인했다. 영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일동맹의 체결이란 일제의 한국강점을 승인했다는 의미이다. 일제의 한국 점령 승인에 대한 영국의 계산에서 영국의 일본에 대한 무기판매 의도도 숨겨져 있었다. 영국은 1899년 일본이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1천만 파운드의 차관을 일본에 제공했고 또 일본이 그 때까지 만들지 못했던 전함과 순양함을 판매했다.

미국의 경우도 일본이 전쟁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외채를 제공했다. 일본의 전쟁 비용 17억 엔 중 8억 엔이 영미에서 모집된 것이었다.⁸⁾ 또 일제를 러일전쟁 과정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29)를 통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하는 대신 일본의 한국 단독 지배를 승인받았다.

일제는 1905년 5월까지 육해전에서 큰 전승을 거두고 나서, 동월에 미국 대통령 T. 루즈벨트에게 강화조약 체결 성립을 의뢰했다. 결국 그의 중개로 포츠머스조약(1905. 8-9)이 조인되었다. 그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일본은 한국에서의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 탁월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일본의 대 한국정책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러시아가 조차하던 요동반도와 남만주철도(장춘-여순)를 일본에 넘긴다. (3) 러시아 영토인 사할린 남반부를 일본에 할양한다. (4) 러시아가 일본의 대한(對韓)정책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일제는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만주를 지배해 가게 된다.

청일전쟁이 신구의 대립,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전근대와 근대적 가치체계와의 대립이라고 하는 국내외적 분위기 속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러일전쟁은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대립이 고조된 국내외적 분위기 속에서 행해졌다.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세력은 호전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이에 대항해온 사회주의 세력들은 반전(反戰)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2.2.3. 제3단계 - 제 1차 세계대전 참가(1914년 8월 23일)와 산둥반도 침략

1) 제1차 대전과 ‘21개조 요구’

1914년 7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제1차 대전이 발발했다. 6년 전 오스트리아

8) 강동진, 상계서, p.207

에 합병된 슬라브계의 보스니아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처가 암살당한 사라예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영국과 독일의 제국주의적 대립을 기본성격으로 해서 제1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러자 일본도 영일동맹에 입각해 8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일제의 속셈은 중국의 청도를 독일로부터 뺏어내는 것이었다. 일제는 9월 일본군을 청도에 상륙시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을 항복시켰다. 10월에는 적도 이북의 독일령의 남양군을 모조리 점령했고, 또 중국 본토의 산둥성 일대도 점령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본 정부는 1915년 1월 대총통 원세개에게 5장으로 된 ‘21개조 요구’를 제시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1) 산둥성에서의 독일 이권과 산둥성의 철도부설권을 일본에 넘길 것. (2) 대련여순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의 권리를 99년간 더 연장할 것과 동부 내몽고를 일본의 세력권으로 할 것. (3) 한야평공사(漢冶萍公社, 철광석과 석탄생산 회사)를 일본이 독점하는 것을 인정할 것. (4) 중국의 연안 도서를 외국에 할양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것. (5) 중국 정부의 군사재정 기관에 일본인 고문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 경찰권을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장악하든가 아니면 일본 경찰관을 고용할 것 등이었다. 이 ‘21개조 요구’는 만몽지역을 사실상의 일본 영토로 만들고 또 전국을 장차 일본의 지배 아래 두려는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의 노골적 표현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원세개는 1915년 5월 제 5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4항은 모두 받아들인다는 협정에 조인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제 군부는 만몽독립운동의 음모를 꾸며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1918년 11월 독일혁명으로 인해 독일 황제가 퇴위되고 공화국이 세워져 제1차 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했다. 그 결과, 1919년 1월부터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강화조약이 행해졌다. 뒤늦게 전쟁에 참여한 중국이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들어있는 ‘산둥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월슨은 국제연맹을 성립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 문제에 대해 일본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으로 그 ‘산둥문제’를 끝내지 않았다. 미국은 현안을 워싱턴회의(1912. 11~1922. 2)를 열어 그곳에서 산둥 현안을 끌어내 해결했다. 워싱턴 회의는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계속된 주둔으로 인한 미국과의 대립초래, 영일동맹의 폐기 하에서 이루어졌다. 워싱턴회의의 주된 의제는 해군군축조약이었는데, 그 회의에서의 주력함 보유비율이 미 5, 영 5, 일 3으로 결정되었다. 또 그 조약과 더불어 마영불일의 4개국 협조 조약이 맺어짐으로써 영일 조약이 종료되었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끝나게 되었다. 또 그 워싱턴 회의에서는 미국이 북경 이남의 중국에 자신들의 자본을 투입해 자신들의 상품시장으로 만들어가려는 속셈에서 ‘문화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9개국 조약이 맺어졌다. 그런데 그 조약에 ‘중국의 주권존중’, ‘영토보존’ 등의 조항이 들어있어, 그것에 입각하여 일본은 영마불의 삼국으로부터 제 5항을 제외한 ‘21개조 요구’가 유효한 것임을 인정받았지만 산둥의 구 독일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해야 했다. 이것은 미국이 만주몽고에 대한 일본의 특수이익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1931년까지 워싱턴체제에 입각해 10년간 일본의 대륙정책이 유지되어 나갔다.

2) 러시아 혁명과 일제의 시베리아 출병

그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1917년 11월 러시아혁명이 일어나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되어 소비에트 정권이 세워졌다. 혁명정부는 무병합(無併合)·무배상(無賠償)·민족자결의 평화원칙을 내걸고 전쟁 중지를 선언했다. 러시아혁명은 민중의 희생을 가지고 전쟁을 강요해가는 모든 교전국 정부들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군은 시베리아에 공동 출병시켜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타도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공동 출병에 일본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타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던 미국보다 더 빨리, 1918년 1월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우선 두 척의 군함을 블라디보스토크 만에 침투시켜 시베리아 지역으로 침공해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상 일제의 시베리아 출병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시베리아에 침공해 우선 러시아혁명을 실패시키고 “바이칼 호 이동(以東)지역을 일본의 영토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곳에 괴뢰국가를 세워 북만주와 내몽고를 일본의 사실상의 영토로 만든다.”라는 것이었다.⁹⁾ 그러한 속셈이 있어 일본이 재빨리 단독 출병하자,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도 뒤질세라 연합군으로 참전해 소련에 대해 대대적인 간섭전쟁을 개시했던 것이다.

러시아 혁명이 일본의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해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일으켜갔다. 그동안 일제는 제 4차에 걸친 러일협약을 통해 제정러시아와의 중국분할을 획책해왔다. 그러나 일제는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그러한 획책이 저지되자 시베리아까지를 자신들의 세력권 내에 포함시켜 보기 위해 간섭전쟁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1918년 1월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로 침입해 들어갔다. 일제는 그 해 7월에 시베리아 출병을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정시키지는 제국주의 연합군의 공동출병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그러한 공동출병안을 백지화시키고 북만주에 주둔해있던 병력을 이동시켜 7만 3천이란 대병력으로 바이칼 호 동쪽의 전 지역을 점령해 버렸다.

사태가 그렇게 돌아가자 그 다음 1919년 1월 이후 시베리아 지역의 소비에트 지지 세력들이 일본군에 대해 유격전을 전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용감히 싸운 집단의 하나가 북만주, 시베리아, 연해주 등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었다. ¹⁰⁾ 그들은 일제의 한국침략으로 인해 해외

9) 강동진(1985), p.278

10) 강동진(1985), p.280

로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소비에트 정권의 지지 세력들의 줄기찬 유격전으로 인해 간섭군이 세운 괴뢰정권은 무너졌고, 간섭전쟁도 간섭군의 사기저하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미국이 1920년 1월 철수를 선언했고 다른 나라들도 6월까지 완전 철수했다. 그러나 일제만은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거류민 보호’, ‘동양 평화 유지’, ‘한국과 만주에 대한 혁명 파급 방지’ 등의 구호를 내걸고 사할린 북부지역에서 1922년 6월까지 계속 철수하지 않다가 소련·만주의 격렬한 반일투쟁으로 결국 철수하게 됐다.

3) 중국 공산당 결성과 일제의 산동침략

한편 중국의 북경대학 학생들은 베르사유 강화회의에서의 일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미국의 산둥문제 해결에 불만을 품고 천안문 광장에서 ‘21개조를 취소하라’, ‘청도를 반환하라’, ‘매국노를 처벌하라’ 등의 슬로건을 들고 1919년 ‘54운동’을 일으켰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에 공산당이 결성된 것은 1921년 7월 상해에서였다. 그것은 파리에서 베르사유 강화회의(1919. 1~6)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해 3월 모스크바에서 소련을 비롯한 유럽의 30개국 공산당 대표들이 참석한 코민테른(제 3인터내셔널)이 결성됐었다. 그 해 7월 소비에트 정부는 ‘중국인민 및 남북의 두 중국정부’에 대해 제정(帝政)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뺏은 이권을 무상으로 반환하고 비밀조약을 전부 파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것이 중국에 전해지자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소 국교수립의 요구의 소리가 나왔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1921년 6월에 코민테른 극동제국담당 집행위원 대표 마링이 상해에 도착해 공산당 결성을 성공시키고 국민당 정부의 손문과 공산당과의 민주연합전선 결성을 제기했다. 그 다음 1923년 1월 손문과 소비에트 정부에서 파견된 요페는 “중국에게 가장 긴급한 과제는 민족의 통일과 완전한 독립이므로, 소련은 이 사업에 대해 열렬한 공감을 갖고 원조한다.”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¹¹⁾ 이리하여 1924년 1월 광주에서 국공합작이 정식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 1926년 7월, 1925년 손문 사후 광둥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장개석에 의해 북벌전쟁이 전개되었다. 그 북벌과정에서 1927년 7월 3년 7개월 만에 제 1차 국공합작은 붕괴되고, 일제의 장개석 북벌 방해의 일환으로 1928년 4월 산둥침략(지난사건)이 자행되었으며, 6월에는 만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장작림 폭발사건이 행해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1928년 12월 장작림의 아들 봉천군벌 총수 장학량(張學良)이 국민정부로 돌아섬으로써 북벌이 완성되어 결국 전국 통일이 실현되었다. 그렇게 되자 우선 무엇보다도 일제의 만주지배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모순이 야기되어 일제는 제 1차(1927.

11) 고지마 신지 외(1988) 『중국근현대사』 지식산업사, p.98

5), 제 2차(1928. 4)에 걸친 산둥침략을 통해 만주 점령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마잉불독의 중국 지지로 외톨이가 되어 만몽 점령이 좌절되었다.

2.2.4. 제4단계 - 만주사변(1931년 9월 발발)과 만주국 건설

1930년 1월에 런던에서 영·미·불·이·일의 군축회의가 열렸다. 일제는 잠수함은 미국과 동수로 하지만 순양함을 미국의 60%, 보조함을 70%로 한다는 결정이 이뤄졌다. 국제적 상황이 이렇게 일제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 내의 우익세력들이 ‘만몽문제 무력해결’을 요구해 갔다. 일제의 관동군은 우익세력들의 그러한 움직임을 타고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일제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15년 전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일제는 1932년 3월 1일 ‘만주국’ 성립을 선언하고 청조 최후의 황제 부의(溥儀)를 천진에서 만주국의 수도 장춘으로 데려와 그 해 9월에 만주국 황제에 취임시켜 만주국을 건설했다. 일제는 그 다음해 열하성을 침공해 만주국에 편입시키는 등 화북 5성을 점령해 내몽고 독립공작 등을 통해 화북분리 공작을 획책해 갔다. 그러자 만주를 자신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개척해가고 있는 미국이 일제의 그러한 만주점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또 영국인 리튼(Lytton)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도 국제연맹으로부터 1932년 2월에 파견되었다. 그러자 일제는 그 해 3월 말에 국제연맹을 탈퇴해 버리고 말았다.

2.2.5. 제5단계 - 중일전쟁(1937년 7월)과 남경을 비롯한 남부 중국점령

1937년 7월에 가서 일제는 북경부근의 노구교(盧溝橋)사건을 계기로 중국과의 중일전쟁을 일으켜 가게 된다. 그해 12월까지의 국민정부의 수도 남경과 화북 5성의 주요도시들이 점령되고 동월에 남경대학살 사건이 행해졌다. 그 다음해 1938년 10월에는 전시(戰時) 수도였던 무한(武漢)이 함락됨에 따라 전쟁은 일제의 승리로 기울게 된다. 그러자 1938년 11월 3일 고노에(近衛)내각이 ‘동아신질서 건설’을 발표한다. 주시해 보고 있는 미국은 1939년 7월 중국에서의 일본이 미국의 통상권익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해 미일통상조약의 파기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전략물자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일본은 자원을 찾아 남방으로 손을 뻗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일제는 1938년 11월 남방까지 진출해 동남아가 포함된 ‘대동아신질서’를 구상해 발표했다. 그 후 1939년 5월 11일 만몽 국경지대 노몽한에서 소련군과 충돌사건이 발생한다. 그 해 8월 23일에는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된다.

2.2.6. 제6단계 - 대동아전쟁(1941. 12. 8~1945. 8. 15)과 동남아 점령

영·불 대 독이 간의 제국주의 전쟁 제 2차 세계대전(1939. 9. 1~1945. 8. 15)이 발발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9년 7월 26일 일제는 미국으로부터의 미일 통상조약 파기 통보를 받게 된다. 그 전쟁 직후인 9월 15일에는 소련과 정전협정을 체결한다.

1940년 4월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는 대승리를 거두자, 6월 24일 일본의 군부 고노에 내각은 독일을 모방해 ‘신체제’ 수립을 선포하고, 독일식의 일당독재체제 구축을 통해 동남아 점령을 시작으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¹²⁾ ‘대동아신질서’ 구상이 구체화 되었다. 1940년 여름 독일에 의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패하고 9월에 독·아일의 3국군사동맹이 성립됨에 따라 일본군은 드디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진군해 들어갔다. 그러자 미국이 고철(古鐵)과 석유의 대일수출 금지, 일본의 재미(在美) 자산동결 등으로 대응해 감에 따라 결국 1941년 12월에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동년 9월 23일부터는 베트남에 대한 무력침공을 자행한 후 동월 27일 일본은 일·독이의 삼국동맹에 조인한다. 그 다음 1941년 12월 8일에는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대동아전쟁을 개시하게 된다.

2.3 일제의 대륙침략의 사상적 배경

2.3.1. 제국주의사상의 출현과 진화론

1) 제국주의 사상의 출현

일본은 1889년 ‘일본국’(日本國)으로부터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으로 국명을 바꾸고 입헌군주국으로의 정치형태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제국주의국가로 전환해 나와 대륙침략을 감행해나가게 된다. 그 첫 시도가 청일전쟁(1904~1905)이다. 일제는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요동반도 등을 손에 넣게 된다. 그러나 일제는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잃게 되자, 러일전쟁(1904~1905)으로 한반도를 손에 넣는다.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1914~18)의 참전과 승리를 통해 중국과 21개조 비밀조약을 체결해 중국대륙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해 가려 했다. 그러나 영미의 간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그러자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지배해 가게 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39년에는 동남아시아를 침략한다.

12) 由井正臣(1980) 「太平洋戰爭」『岩波講座 日本歴史21』岩波書店, p.67

일제가 이렇게 대륙 침략을 강행해갔던 그 주된 이유는 우선 일차적으로 서구의 제국주의국가들의 동침으로 파악된다. 서구의 열강들은 근대화를 통해 국민국가로 전환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은 19세기 전반까지는 내셔널리즘으로 그 후반부터는 제국주의로 무장해서 19세기 중반까지 아직 봉건주의 국가 상태에 머물러 있던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상태로 몰고 나갔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그들로부터 반식민지상태로 전락되었다. 그것을 목격하고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던 일본은 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문호를 개방당한 후 그들과의 불평등조약이 맺어짐으로써 일본의 국민경제가 개방 10년 만에 파산일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서구의 열강들을 상대로 한 내셔널리즘사상이 형성되어 나왔다. 이렇게 서구의 열강들을 상대로 형성되어온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적극적으로 일본의 전통문화로부터는 천황제사상을 받아들이고 서구의 열강들로부터는 제국주의사상을 받아들여 그것들은 기초하여 확립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서구의 열강을 상대로 한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천황제사상과 제국주의사상을 주축으로 해서 대륙침략 사상으로 구체화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의 천황제사상과 서구의 제국주의사상은 어떻게 대륙침략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여기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일제의 대륙침략에 대한 사상적 측면에서의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행해져 왔다. 그러나 글로벌적 시각에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행해진 것은 필자가 아는 한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글로벌적 시각을 취해 일본의 천황제사상과 서구의 제국주의사상이 대륙침략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¹³⁾

필자는 우선 서구에서 제국주의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는가를 검토한다. 필자는 그것을 통해 제국주의사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낸다. 다음으로 서구의 그러한 제국주의사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동아시아에 전파되어 나왔으며,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동아시아에 수용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끝으로 일본에서 제국주의사상이 어떤 식으로 천황제사상과 융합되어 대륙침략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는지에 관해 고찰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을 단행하고 그로부터 3년째 되던 해에, 1871년에 서구열강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구미에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 1871. 10~1873. 9)을 파견한다. 이와쿠라 사절단일행이 유럽에 도착한 것은 1872년으로 유럽이 제국주의시대로 접어들게 된 시점이었다. 프로이센은 보불전쟁(普佛戰爭, 1870. 7~1871. 3)에서의 승리를 계기

13) 김채수(2011) 「일제의 대륙침략과 알타이 민족의식」 『일본근대학연구』 제3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300-301

로 독일 통일이 실현되었다. 1871년에 독일제국이 성립됨에 따라 유럽은 그것을 계기로 제국주의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럽에서 제국주의(Imperialism)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은 보불전쟁에서의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한 직후에서부터였다. 그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자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뉴스(1870. 6. 8)는 나폴레옹 3세의 프랑스 제 2제정이 행했던 정치를 ‘제국주의’로 평가했다. 이 때의 ‘제국주의’는 전제정치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과 식민지개척이란 현대적 의미를 함유하게 된 것은 1880~18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에서 ‘제국주의’가 해외의 영토 확장과 상품시장 개척이란 의미를 함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였다. 일본이 1889년 ‘대일본제국’이란 명칭을 취해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해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다. 일제는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해 나온 지 5년 만에 청일전쟁을 일으켜 대만을 식민지로 취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명실공히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2) 제국주의의 윤리적 기초

(1) 자본주의

서구에서의 자본주의는 산업혁명(18세기 후반)을 통해 형성되어 나왔고 그 이론적 근거는 아담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담 스미스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정부가 국가를 부국으로 만들려면 우선 정부는 개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개개인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최대한 실현시켜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개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노동력이 상품들로 전환되어 나오게 됨으로써 그것이 바로 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가든 노동자든 그들 각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간다면 바로 그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이 되어 사회를 부와 번영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이 서구인들에서의 자본주의 활동의 목표는 다름 아닌 바로 부국에 있었던 것이다.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에서 자본주의정신의 기초를 구축한 자들 중의 한사람으로 미국을 건설한 자들 중의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을 뽑고 있다. 막스 베버는 프랭클린이 당시 미국인들

14) 아담 스미스 저·최임환 역(1970) 『국부론(상)』을유문화사, p.6

에게 제시한 윤리의 최고선은 “돈을 벌고 더욱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그 결과 막스 베버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은 돈벌이를 자신의 물질적 생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로 여기게”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⁶⁾

서구열강들이 해외진출과 식민지개척을 행했던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들을 확보해 그것들을 확장해가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값싼 노동력과 원료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에 도착했던 시점은 미국에서 최초의 횡단 철도가 완성된 지 2년째 되던 때였고, 또 그들이 유럽에 도착했던 1872년에는 수에즈운하가 개통된 지 3년째 되던 때였다. 당시 그러한 교통로들은 값싼 해외노동자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또 그것들은 서구열강들이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자본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유용한 수단들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었다.

2) 기독교

자본주의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에 기초해서 성립되어 나왔다는 입장으로, 막스 베버에 의해 1905년에 제기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근대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이란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해 성립되어 나왔다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칼뱅주의의 예정설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론 칼뱅주의의 예정설이 매우 특출한 결과를 낳은 것일 뿐 아니라 매우 탁월한 심리적 효과를 가진 것이었음을 확신한다.”¹⁷⁾ 예정설(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이란 이 세계와 인간생활의 모든 것들이 신에 의해 이미 규정되었고 신의 의지에 완전히 지배되어 가기 때문에 전능한 신으로의 완전한 귀의와 신 앞에서의 철저한 금욕적 태도가 요구되며, 인간이 바로 그러한 입장을 취할 때만이 비로소 신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그러한 금욕주의적 태도는 자신들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자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적의식 하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근검절약해서 하나의 자본을 만들어 그것을 어딘가에 투자해 그것으로부터 나온 이윤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의 그러한 금욕주의적 정신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간이 부를 축적했을 때만이 우선 이웃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사회를 발전시켜갈 수가

15) 막스 베버 저·박성수 역(1996)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문예출판사, p.101

16) 상계서, p.38

17) 상계서, p.38

있고, 또 그로 인해 개개인들이 영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상으로 구체화되어 나왔다. 다른 아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사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기자본을 증대시켜 그것으로 더 큰 이윤을 추구해간다는 사상이다.

서구가 제국주의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사절단들이 해외에서 행해갔던 문명화작업이나 공장설립은 바로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 행해졌던 것으로 고찰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웃을 위해 더 나아가서 자국민들을 위해 더 큰 자본을 만들려고 식민지 개척에 나선 자국 자본가들의 선봉대 역할을 행해갔던 것이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1813~1873)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한 선교사 리빙스턴도 아프리카를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선교사, 상인, 군대가 쉽게 드나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3) 진화론

『제국주의 : 이상과 현실』(1983)의 저자 빈프리트 바움가르트(Winfried Baumgart)는 제국주의를 사회진화론과 관련시켜 “사회적 진화론은 제국주의 추진력과 변명, 양자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⁸⁾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 1809~1882)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것은 1859년이다. 그는 그것을 통해 적자생존(適者生存)자연도태(自然淘汰)를 주창했고, “인간과 원숭이는 공동조상을 갖는다.”라는 인수동조론(人獸同祖論)을 주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종(種, species)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그는 종들이 진화해왔고, 그 진화는 자연도태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의 그러한 주장은 험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 1820~1903)의 사회진화론을 출현시켰다. 그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1859)이 출판된 그 다음해에 집필된 『첫 번째 원리』부터 『사회학의 원리』(1896)까지의 ‘종합철학’이라 이름 붙여진 방대한 양의 저술들을 통해 나타나 있다. 그것은 다윈의 진화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회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원칙에 입각해 발전해간다고 주장한 학설이다. 그의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 가는 것은 생물계의 생존법칙이기 때문에, 생물체의 생존윤리는 바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에서 찾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진화론이 1871년 독일제국의 성립을 계기로 유럽이 제국주의시대로 접어들어 가던 시점에서 일반화되어 나와 제국주의사상의 윤리적 기초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18) 빈프리트 바움가르트 저·이우영 역(1987) 『제국주의 : 이상과 현실』법문사, p.132

다윈시대에 다윈의 전도사로 알려졌던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은 『창조의 자연사』(1868) 등을 통해 인종의 발전이 개개인의 발전만큼이나 필요하며 미개한 종족은 보다 발달한 종족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그러한 입장에 의거해 정치, 경제, 도덕은 생물학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의 그러한 학설은 나치스트들에 의해 응용되었다.

2.3.2. 일본의 제국주의사상

1) 서구제국주의의 일본 도래경위

일본은 1858년 안세이(安政) 5개국 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서구의 근대 산업혁명을 통해 확립된 서구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맞물리게 된다. 일본의 그것과의 첫 접촉은 불평등조약으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서구의 제국주의는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정신으로 무장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진화론으로까지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다.

2)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 일본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종의 기원』(1859)에 이어 두 번째로 출판된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1871)가 고즈 손사부로(神津尊三郎)에 의해 『인조론』(人祖論, 1874)으로 번역됨으로써였다.¹⁹⁾ 그의 첫 출판물 『종의 기원』이 번역 출판된 것은 다치바나 센사부로(立花銑三郎)에 의해 1896년에 이루어졌다.

일본에 험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소개한 사람은 미국인 생물학자 에드워드 S. 모스(Edward Sylvester Morse, 1838~1925)였다. 그는 하버드대학에서 생물학을 배우면서 험버트 스펜서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하버드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일본으로 건너와 1877년에 도쿄대학에서 동물학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강의내용은 그가 일본을 떠날 무렵 이시카와 지요마쓰(石川千代松)가 『동물진화론』(1883)으로 간행했다.

이와 같이 다윈의 생물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18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 후 30년간, 일본의 제국주의국가가 확립되어 나온 시기에 가장 강하게 지식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문제들이었다. 예컨대, 1889년 종합잡지 『국민의 벗』(國民之友, 民友社)이 지식인 69명에게 「서명십종」(書名十種)이라는 애독서 조사를 행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서 4명이 생물진화론

19) 이 두 번째 책에서 다윈은 ‘evolution’(진화)이란 말을 비로소 사용했다. 『종의 기원』에서는 ‘evolution’ 대신에 ‘transmutation’(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evolution’(진화)이란 말은 험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social evolution)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의 사회진화론이란 말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그 다음해에 출판된 스펜서의 『첫 번째 원리』(First Principles, 1860)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과 관련된 서명을 적어냈다. 그 후 1902년 마루젠(丸善)의 홍보지(廣報誌) 『학등』(學燈)이 실시한 「19세기 서구의 대저술」의 추천 앙케이트의 결과에 의하면 78명 중 32명이 『종의 기원』을 추천했다. 2위는 피테의 『파우스트』, 3위는 험버트 스펜서의 『종합철학대계』였었다. 1909년 『시사신보』(時事新報, 時事新報社)가 지식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발표한 「백서」(百書)에는 추천자의 23%가 『종의 기원』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되어 있다.²⁰⁾

다윈의 생물진화론은 인수동조론(人獸同祖論)에 대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인수동조론(人獸同祖論)이란 다윈의 생물진화론에 입각해 성립된 이론이다. 따라서 짐승들과는 달리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고 믿어온 서구의 기독교인들이나, 혹은 일본의 천황은 천신의 후손으로서 현인신(現人神)이라고 믿어온 신도가(神道家)와 국학자(國學者)들에게는 인수동조론이라는 것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한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에 대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3) 황국사관

일제의 대륙침략은 황국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근대 일본의 천황제 사상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다년간 일본민족의 기원을 연구해온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는 사카노 도오루(坂野徹)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일본민족의 기원론이 인종적 유연성(類緣性)을 근거로 해서 해외 진출이나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와 결합되기 쉬운 구조에 유래 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²¹⁾ 여기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일본민족의 기원론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북방계와 남방계라고 하는 이중구조를 의미한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그 이중구조의 문제가 일본의 천황가가 북방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냐 남방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배층 천황가와 피지배층 일반서민이 각각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이냐 등의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 취해진다. 또 그는 “에가미 나미오는 ‘기마민족설’에서 고대일본국가가 북방계아시아의 정복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마민족에게 지배당한 고대일본민족을 남방계 아시아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²²⁾ 이러한 문제는 황국사관의 기초를 제시한 신화 역사집 『고사기』·『일본서기』의 내용에 근거에 제기된 문제들이다.

황국사관이란 『고사기』·『일본서기』에 내재된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일본역사

20) 右田裕規(2009) 『天皇制と進化論』靑弓社, pp.28-29

21) 세키네 히데유키(2011) 「도라이 류조(鳥居龍藏) 일본민족 기원론에서의 남방계민족·민족이동의 관점에 서」 『일본문화연구』 제40호 동아시아일본학회, p.258

22) 세키네 히데유키(2011)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일본민족기원론에서의 왜인과 한인」 『동아시아고대학』 제2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p.410

를 보려는 역사관을 말한다. 그러한 황국사관에 입각해보면 천황은 천신의 후예로 ‘인간신’이다. 그런데 서구로부터 일본에 진화론이 소개되자 ‘신’으로서의 천황은 인간으로서의 천황으로 전락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일제는 ‘제국헌법’과 ‘교육칙어’를 제정, 공포해 천황을 신격화시켜 나갔다. 그 과정에서 일제의 제국주의사상은 한층 더 고조되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메이지 정부는 황국사관에 입각해 인간 천황을 신적 존재로 높여가기 위한 방법으로 천황가를 자신들의 종교적 대상으로 받아들여가는 신도(神道)를 국민적 종교로 받아들인다. 메이지정부가 메이지 초기에 불교와 신도를 분리시켰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의도 하에서였던 것이다.²³⁾

황국사관은 배외주의적이고, 자국중심주의적 역사관이다. 황국사관에 의하면 천황은 태양신의 직계손이다. 천황가는 종가(宗家)이고 국민은 분가(分家)이다. 일본민족은 바로 그러한 존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민족은 다른 민족들 보다 더 우수한 민족이다. 따라서 우수한 일본민족이 인접한 타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처사라고 하는 것이다.

3. 결론

글로벌적 시각에서 파악된 일제의 대륙 침략 양상과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고찰된다.

일제의 대륙 침략은 1871년 독일 통일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시대로 접어든 시점과 맞물려 시발되었다. 따라서 일제의 대륙 침략의 시발은 근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접촉을 계기로 1874년 일본의 대만 출병, 1876년 강화조약을 통해 행해졌던 것으로 고찰된다.

일본의 대륙 침략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에 의해 행해졌다. 국내적 요인은 사족(士族) 출신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외 침략을 통해 해소시키려는 정치가들의 정치적 발상에 있었다. 국제적 요인은 유럽 열강들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민지 쟁탈로부터의 자극이었다. 이러한 두 차원의 요인은 국내에서의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해지고, 해외에서의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어 나감에 따라 일본의 대륙 침략을 새로운 단계로 추진시켜 나갔다. 일본 국내에서의 대륙 침략의 추진 세력은 불만 사족 출신, 자유민권 운동세력, 국권 및 우익 운동 세력, 군부세력으로 전개되어 나왔다. 해외에서 일본의 대륙 침략에 공조해 갔던 세력은

23) 김채수(2009)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의 기마민족 정복설의 출현배경에 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2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579-581

전반기에서는 영미의 반(反) 봉건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었고, 후반기에서는 독이의 군국주의 세력이었다.

일본의 대륙침략은 6단계를 통해 전개되어 나갔다. 그러한 단계는 청일전쟁(1894년 시발), 러일전쟁(1904년 시발), 제 1차 세계대전(1914년 시발), 만주사변(1931년), 중일전쟁(1937년 시발), 대동아전쟁(1941년 시발)을 통해 전개되어 나갔다.

일본의 대륙침략은 전반기의 제 3단계까지는 영·미와의 공조체제를 취해 행해졌다. 그러나 후반기의 제 3단계는 영·미와의 대립 하에서 행해졌었다. 일제의 대륙침략의 전반기는 북방 육로의 러시아와의 대립 하에서 행해졌었고, 후반기는 남방 해로의 영미와의 대립 하에서 행해졌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 침략은 결국에 가서 북방의 러시아와 남방의 영미가 공조해 일제의 대륙침략에 대립적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자행했던 사상적 이유는 자국기업들의 자본 확대, 판매시장 확대, 노동력 착취, 영토 확장 및 문화영토 확장 등이었다.

일본의 국내외에서의 일본의 대륙 침략을 추진시켜 나갔던 세력들과 그 정치적 체제는 글로벌 시대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 있다. 우리는 일제의 대륙침략의 원인을 규명해 낼 때 그 원인을 일제로부터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당시 일제와 대립 및 협조해갔던 서구의 제국주의국가들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취해진다.

【參考文獻】

- 강동진(1985) 『일본근대사』한길사, p.71
 김성근 외(1964) 『세계문화사V』학원사, p.358
 김채수(2012) 「글로벌시대란 어떤 시대인가-문명사적 측면을 통해-」『일본근대연구』제36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243-245
 _____(2011) 「일제의 대륙침략과 알타이 민족의식」『일본근대연구』제3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pp.300-301
 _____(2009)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의 기마민족 정복설의 출현배경에 관한 고찰」『동북아문화연구』제2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579-581
 _____(2009) 「근현대 일본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의식-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와 그 주변인사들을 주축으로 해서-」『일어일문학』제4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10-311
 고지마 신지 외(1988) 『중국근현대사』지식산업사, p.98
 막스베버 저·박성수 역(1996)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정신』문예출판사, p.101
 세키네 히데유키(2011)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일본민족 기원론에서의 남방계민족—민족이동의 관점에서-」『일본문화연구』제40 동아시아일본학회, p.258
 _____(2011)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일본민족기원론에서의 왜인과 한인」『동아시아고대학』제2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p.410
 아담 스미스 저·최임환 역(1970) 『국부론(상)』을유문화사, p.6

宇野俊一(1980) 「日露戰爭」『岩波講座 日本歴史17』岩波書店, pp.12-13

右田裕規(2009) 『天皇制と進化論』青弓社, pp.28-29

由井正臣(1980) 「太平洋戰爭」『岩波講座 日本歴史21』岩波書店, p.67

논문투고일	: 2012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10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5일

< 要 旨 >

일제의 대륙침략양상과 그 요인 고찰

일제의 대륙침략양상과 그 요인 고찰, 글로벌적 시각에서 파악된 일제의 대륙 침략 양상과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고찰된다. 일제의 대륙침략은 6단계를 통해 전개되어 나갔다. 그러한 단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 대동아전쟁을 통해 전개되어 나갔다. 일본의 대륙침략은 전반기의 제3단계까지는 영·미와의 공조체제를 취해 행해졌다. 그러나 후반기의 제3단계는 영·미와의 대립 하에서 행해졌었다. 그 침략의 전반기는 북방 육로의 러시아와의 대립 하에서, 후반기는 남방 해로의 영미와의 대립 하에서 행해졌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 침략은 북방의 러시아와 남방의 영미가 공조해 일제의 대륙침략에 대립적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써 결국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일제가 대륙침략을 자행했던 사상적 이유는 자국기업들의 자본 확대, 판매시장 확대, 노동력 착취, 영토 확장 및 문화영토 확장 등이었다. 문제는 일본의 국내외에서의 일본의 대륙 침략을 추진시켰던 세력들과 그 정치적 체제는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어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 있다는 것이다.

The Study on Japanese Empire's Invision to the continent and its cause

The pattern of the Japanese Empire's invasion into the Asian continent and its factors are investigated as the following. Japanese Empire's invasion of the continent developed with 6 steps. Each of those steps are made by the Sino-Japanese War, the first world war, the Manchurian Incident, the Chinese-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Japanese Empire's invasion was developed to the third step of the first half with the mutual aid between England and Japan. But from the forth step of the latter half it had been done unde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m. And at the first half of Japan's invasion it had been done under the confrontation with Russian on the northern land route, and at the latter half of it Japan's invasion had been done under her confrontation to Anglo-American and England on the southern route. Japan's invasion, however was eventually broken down by their taking of confront attitude against Japan's invasion with their cooperations between Russian in the north and the Anglo American-England in the south. The ideological reasons why the Japan invaded the continent were a capital expansion of domestic companies, expanding sales markets, labor exploitation, territorial expansion and cultural territorial expansion.

Until now the global era, the forces and the political system which had promoted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continent have been alive.